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7호 [루게 제24865호] 주체104(2015)년 3월 28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관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관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인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동지
나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나의 생일 79회에 즈음하여 따뜻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관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계속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승고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길 축원합니다.
관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관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썸 말 리 싸 이 나 쓴
2015년 3월 11일 비엔리안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쳐가시는 김정은령도자

나이제리아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36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16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인민적령도자의 풍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호모를 받고계신다. 이것이 오늘날 국제사회를 감동시키고있다.
그대면 공식 정치 무대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되시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어떻게 되어 인민들로부터 그처럼 열화같은 호모를 받으시는가.
그에 대한 답은 절세위인께서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인민사랑의 화폭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인민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정을 부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적극 헌신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선진적인 탐사기술을 탄광들에 도입할데 대한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가지있는 탐사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의 과학자들도 수입에 의존하던 수입종의 분석용표준물질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완성함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와 규격화 사업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당의 대자연계조수상을 높이 받들고 국

태양절 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 경축 구간다전국준비위원회의 결성식이 19일 캄팔라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은 구간다의 각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반대성단체성원들이 참석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고문으로 구간다대통령상급고문끼론다 기베전자, 위원장으로 구간다대통령부 국장 헨리 마씨코, 서기장으로 범아프리카운동 구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무가라마가 선출되었다.
끼론다 기베전자와 헨리 마씨코는 연설에서 태양절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명절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사주위업의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우간다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령도하에 조선인민은 강성국가로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강령적지침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에 대한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것은 체육강국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 7차 전국체육인대회
대중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백산군인민위원회 부장 안승철은 골결에서 그림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크나큰 감격에 대해 이야기하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서한에서 체육강국건설은 우리 나라를 체육으로 흥하는 나라, 체육으로 강대해지려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셨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

성구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증시하는 크나큰 전진인 체육강국건설에서 우리 백산군이 전국의 앞장서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신민주주의위원회 부부장 최원진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체육을 즐겨하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물결쳐 하는데서 일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시인의 모든 부분, 모든 단원들이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깊이 학습하고있다. -체육성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다. 세계적인 탁구발전추세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탁구소조를 더욱 실속있게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적극 탐구 도입하는데 열정을 다 바쳐나갔다. 하여 나라의 탁구발전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었다.
체육성에 파견된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한사람인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교원 김정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 흥분도 크고 나라의 체육강국건설에 이바지할 과학기술성공과를 더 많이 마련해갈 결심도 더욱 확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 꽃피는 사회주의농촌

안주시 덕성협동농장을 찾아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신심과 락만에 넘쳐 전진하는 내 조국의 승평인양 불멸형동진트로 뚝뚝 사회주의협동농장의 전경은 실로 장관이다. 우리가 찾았던 안주시 덕성협동농장도 다름없었다.

이곳을 돌아보며 우리는 정력적인 영도로 농장을 일하고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시켜주신 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과 그를 빛내이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는 농업근로자들의 불같은 열의를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오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주체혁명업무를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무죄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안주시 소재지에서 청천강을 건너 얼마간 가면 2층으로 훌륭히 건설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이며 탁아소, 유치원건물과 문화주택들 등이 한눈에 안겨오는 농장이 있다. 예가 바로 안주시 덕성협동농장이다.

《우리 덕성협동농장이 일하고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전변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의 덕이랍니다.》

정치 세력진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 표식비를 가리키며 하는 농장일꾼의 말은 위대한 인민들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절절히 울려다.

혁명사적표식비의 글발을 되새기거나니 오로지 인민을 위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업적실현에도 농장벌에 정력적인 영도로의 자욱을 적으니 우리 부활할 길은 완히 밝혀주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마음이 가득 차네었다.

불멸의 글발을 되새기며 우리에게는 못 잊을 그 날의 화복들이 선히 안겨왔다.

주제 61(1972)년 2월 어느날,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자욱을 이 고장에도 새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눈이 모래성분이 많고 척박하기때문에 질 좋은 두엄을 더 많이 내고 흙갈이를 하여 지력을 높이면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있다고 그 방도도 친히 가르쳐주셨다.

그리고 농장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이따금 문화주택들을 많이 지어 덕성리 마을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꾸밀데 대하여서도 남새농사를 잘하여 덕성리 주 주민들에게 남새를 넉넉히 공급할데 대하여도 간곡히 이르셨다.

추운 겨울날에도 이곳 농업근로자들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려서는 일꾼들의 가슴마다에 넘쳐났던 뜨거운 걱정이 우리의 가슴에도 미쳐왔다.

한평생을 오로지 이 땅위에 일하고도 좋고 살기도 좋은 인민의 락인임을 유념하시며 바친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가 어려우리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 다음해에도 덕성리에는 걱정의 화폭이 펼쳐졌다.

주제 62(1973)년 1월 초순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도의 자욱을 이 고장에 새기셨다.

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덕성협동농장은 산과 강이 있고 벌도 있어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시면서 호랑이 배설물도 친히 알아보고 일을 더 잘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는 토지를 정리하고 기계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학교교육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데 대하여 이르셨다.

덕성협동농장의 보다 좋은 재일을 위해 업적실현의 계획에도 현저지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우리 가슴은 뜨거웠었다.

우리는 2중3대혁명붉은기 제3작업반을 찾았다.

작업반실수면에 심은 수삼나무들이 키 높이 자란것도 분만 하지만 붉은기들이 나뭇가지는 작업반실 앞마당에 거름더미들과 흙보산비더미들이 무뚝뚝 쌓여있었는것이 이채로왔다. 절세위인들의 자욱이 력력한 자기들의 농장을 사랑하고 위하는 이곳 작업반원들의 마음이 엿보이는 반경어오셨다.

우리는 작업반원들에게 들리었다. 소담스러운 바치들이 풍성지 자라는 온실을 보노라니 퍼섯 2중3대혁명붉은기간워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업반을 터놓는 우리에게 광덕근 속성반장은 별로 한 일이 없다며 농장에 있던 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해 더욱 분발할 마음뿐이라고 말하였는 그의 말은 덕성협동농장 주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였다.

애오라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포진걸을 견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투쟁과 전진, 번영의 려사를 대를 이어 빛내어갈 불같은 마음담아 농장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표식비를 정히 세웠다.

불멸의 자욱이 어린 농장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밀 마음안고 이들은 올해도 모두가 펼쳐나 마음과 도로주변에 수삼이 좋은 나무들을 심고있다.

해마다 구분철 바닥파기를 진행하여 자기들이 사는 고장을 더욱 훌륭히 꾸러간다는 이들은 이른다.

프로전 무뚝뚝 쌓여있는 거름더미를 돌면서 우리는 한층의 거름이라도 더 내어 농사를 잘 지어는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수 있었다. 자기들이 사는 고장을 더 훌륭히 꾸릴 마음안고 이들은

2중짜리 편더불사건물도 보란듯이 일며 세우고있었다.

농장벌은 드바바 인심을 놀리는 농업근로자들로 하여 붉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흔을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원단심 충정다해 받들어오며 열려서 걸사용이하는 애국농민이 될 열렬한 마음담아 이곳 사람들은 선군조선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칭송하는 글발을 아로새기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율해신년사를 받아안고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절세위인들의 명도업적을 더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일 결의를 굳게 다지었다.

《뜻깊은 율해에 우리는 농장벌에 거러 이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을 열치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자랑스럽게, 뭇땀이 맺이했것습니다.》

일정에 넘친 한평생관리원칙자의 말은 농장주인들의 불같은 마음을 담고서 저 령있게 울려다.

열렬한 그 마음에 따라들려 힘차게 전진하는 덕성협동농장의 오늘도 풍지만 매일은 또 얼마나 좋을것인가.

붉은기들이 휘날리고 트랙터들의 발동소리 드높이 울리는 이곳 농장벌에서 우리는 절세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오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더 좋은 재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이곳 사람들의 열정과 마음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불같은 투쟁과 노력으로 밝아온 덕성협동농장의 더 밝은 재일을 확신하였다.

본시기자 김인선

한 줌의 흙의 의미

무릇 사람들은 애국에 대하여 말을 한다. 애국! 한없이 숭엄한 이 부름앞에 설 때면 누구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어디서 시작되고 조국을 위하여 참담하게 산다는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할것이다. 그러면 참다운 애국의 마음은 어떻게 울어나며 꽃피는것인가.

이 물음에 우리는 하나의 혁명철학을 통하여 대답하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누구보다도 조국과 사랑할 열렬한 사람이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평생을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김일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가 한 농촌마을을 지나고있을 때였다.

차장으로서 황기는 조국의 산과 들,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급히 차를 멈추도록 하시었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을볕 공밭으로 향하시었다.

영문을 몰라 뒤따르던 일꾼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물에 젖어 내린 발머리를 보시었다. 협상하게 편인 발머리를 이윽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안색은 흐려지셨다. 그의께서는 격하신 유생으로 나라의 재부중에서도 제일 귀한것이 땅인데 땅관리를 어떻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하시며 몸소 땅이 케인 곳에 돌을 날라다 쌓으시었다.

최재감에 머리를 숙이는 일꾼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존경히 타이르시었다.

동무들이 흙 한줌이 얼마나 귀중하나 하는것을 모른다. 한 줌한줌의 흙이 땅덩어리를 이루고 그 땅덩어리가 바로 조국이다. 이 세상에 조국보다 귀중한것은 없다...

선열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사랑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재부가 손실되는것이 그보다 가슴이 쓰이는 누구나 스쳐리던 가을을 열 발머리에서 그처럼 바친 현저지도일정으로 워로 미루시고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농장의 경지면적에 올라있지 않은 땅이라고 하여 이곳 일꾼들도 소홀히 대하여 땅이였다.

한층의 흙이라도 무시해대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안에 일꾼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렇듯 우리 장군님의 혁명생애는 순간순간이 누구도 바꿀수 없는 열렬한 애국의 것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애국의 한층이었다.

한층의 흙과 조국, 조국이 한없이 소중한가에 향일투사들은 사랑는 조국의 한층 흙을 가슴속에 품어안고 향일의 불바다, 피바다 만리

헤쳐왔고 가렘한 전화의 나날 인민군용사들은 조국의 한치한치의 땅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왔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어머니들이 이 땅을 자기의 살처럼 여겨왔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이 땅의 한층 흙, 한그루 나무로부터 시작된다.

자기 집집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자기 고향과 일터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자리나는것이 애국이다.

자기의 부모처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고향마을과 일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수 없으며 참다운 애국자로 될수 없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애국주의의 숭고한 려법이다.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 보석과도 같이 참다운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어도 누가 알아주진않지만 조국의 대지에 자신의 성실한 땅과 깨끗한 땅심을 아끼없이 바쳐간다.

천만군민이여,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를 심고 간직하고 조국의 나무를 그루, 풀 한포기, 한층의 흙까지도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담고서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

우리 인민모두의 삶의 리저너며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조국은 애국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그들의 진실한 애국의 땅방울을 생생수, 자양분으로 할 때에 더욱 융성명날것이다.

채희성



연혁소개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체육단이 걸어온 자랑찬 려사를 감회깊이 되새기고있다. -가판차체육단에서- 본시기자 김광혁 적음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자기들의 일터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있어 장군님을 뵈옵지 못한다는 아귀울음에 날을 보내고 있던 그들이었다.

정겨운 시선으로 일꾼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입을 많이 한 평안일꾼들과 로동계급이 보고싶어서 왔다고, 자장도에 왔다가 이 평안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는것이 마음에 걸려 왔다고 하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이 기다렸길 같이 평안을 해치고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 주실줄 이이 알았었다.

그이께서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차에서 내리실 때 그들은 감격에 목이 메어 감사의 인사도 변변히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장도를 찾으시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거듭 치하해주시었다. 떠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 로동계급을 직접 만나보시었다는 못 기쁘신듯, 그래서 미더운 그들과 헤어지는것이 더 아쉬우신듯 차창을 여시고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었다.

자신의 로고는 야망고하지 않고 오직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풀없이 이어가신 길위에 수놓아진 전설같은 이야기 그 열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있어서 나라의 그 어느 외진 곳에 있는 병사들이건 로동계급이건 모두 그이의 더없이 귀중한 열혈을 위하여 기뻐하시었다.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 시찰의 길에서 초소군부대에 나가

기뻐할에 참가하지 못한 전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바쳐 시찰을 위하여주시은 이야기며 국가적의의를 가지신 큰 포구에 앞서서 그로 하여 철거할 인민들의 살림문제부터 풀어주도록 하시 이야기를 비롯하여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은 우리 장군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세계를 그대로 전해주시었다.

정녕 인민의 커가는 기쁨과 행복에서 탄식들을 다 푸시며 삶의 희열도, 인생의 락도 찾으신분, 평범한 병사들과 인민들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간직되었는 소원까지 다 헤아려 보시고 정진을 쏘아부으신사, 이 나라 천만군민모두를 한사람 한사람 다 품어안으시고 뜨거운 정을 나누시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었다.

본시기자 김철혁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진행

【평양 3월 27일합 조선중앙통신】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2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강습에서는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융호고수하며 우리 당의 승평인양 건설기공을 하루빨리 실현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취급되었다.

강습에서는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의 기본내용이 강조되었다.

로작의 기본사상은 체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체육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자는 것이다.

로작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과업과 방도를 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었다. 체육인들은 선군시대 혁명적체육인의 영예로운 본분과 조국과 인민의 높은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기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체육인들은 백두의 넘과 기상을 지니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 식의 위력한 경기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면전전승하여야 한다.

체육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육체기술, 전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기본과리는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는것이다.

훈련과 경기의 조직자, 집행자인 감독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우리 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창조하고 적극 활용해야 하며 체육경기들을 많이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승산이 있는 체육종목들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넣으며 체육선수후비육성과 체육일군양성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체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가까운 몇해안에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체육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리십시오.》

로작에는 체육강국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운 중요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나라의 전문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패권을 쥐고 나라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펼쳐주도록 하는것이다.

로작에는 당의 체육강국건설기공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었다. 체육인들은 선군시대 혁명적체육인의 영예로운 본분과 조국과 인민의 높은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기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위투사가 되어야 한다.

체육인들은 백두의 넘과 기상을 지니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 식의 위력한 경기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면전전승하여야 한다.

체육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육체기술, 전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기본과리는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는것이다.

훈련과 경기의 조직자, 집행자인 감독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우리 식의 우월한 경기전법들을 창조하고 적극 활용해야 하며 체육경기들을 많이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승산이 있는 체육종목들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넣으며 체육선수후비육성과 체육일군양성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체육지도일꾼들과 체육단 감독, 체육일꾼들을 비롯한 체육일꾼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이 체육을 즐기고는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며 체육의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체육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육지도일꾼들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나라의 체육발전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의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체육부문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며 체육인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고 대대해주어야 한다.

체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강습에서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중시사상과 체육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명도업적을 견결히 융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강조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체육사상리론을 제시하시어 주체체육이 나아가갈 앞길을 완히 밝혀주시었다.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제도를 확립하시였으며 체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도록 이끌어주시고 체육인대오를 튼튼히 꾸려주시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펼쳐가는 새시대를 펼쳐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로 체육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안아오시었다.

우리의 체육을 영원히 수령님의 사상이 펼쳐지 구현된 주체의 체육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인민군체육을 본보기로 하여 나라의 진전적체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식의 위력한 경기원칙, 경기방법을 제시하시어주시고 체육강국건설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받드시고 체육강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하시었다.

전사회적인 체육중시기풍을 세워주시였으며 빨찌산식경기전법을 제시하시시고 체육의 과학화를 실현하여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해주시었다.

사회주의문명국을 대표하는 현대적인 체육문화시설들을 수없이 일며 세워주시였으며 나라의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워주시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체육부문에 주신 유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공격적전법으로 속도로 튼튼히 무장하고 체육강국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강습에서는 또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며 체육경기를 우리 식의 전법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경기를 빨찌산식으로, 공격적인 전법으로 진행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어 우리 식의 경기원칙, 경기방법의 위력을 더욱 높이 펼칠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안겨주시었다.

체육선수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머리정신을 지니고 경기에서 사상전, 투지전을 힘있게 벌리며 고상한 체육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 어떤 강한 상대와 맞닥들어도 정치사상적무기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싸우며 끝까지 경기를 해나가야 한다.

체육선수들은 불이 번쩍 내게 상대를 압도하는 공격적전법으로 속도전의 위력을 펼쳐야 한다.

주타격방향과 공격시기를 유쾌 실정하고 선택하며 공격속도를 최대한 높여 반공격과 연속공격을 틀어대야 한다.

체육과 학부문의 공격속도를 최대한 높여 반공격과 연속공격을 틀어대야 한다.

기묘하고 명활무쌍한 빨찌산전법

을 구현하여 기술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우리 식의 독특한 기술과 전술을 부단히 완성하며 각이한 경기정황과 대상의 특성에 따르는 기묘하고 다양한 전술을 창안하고 능란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습에서는 체육을 과학화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었다.

체육선수후비선발과 육성사업, 체육교수훈련, 경기준비와 지도를 과학화하여야 한다.

체육의 과학화를 실현하면 체육부분 기술일꾼들이 이 사업에 대한 훌륭한 판정과 협조를 가져야 하며 선수, 감독들과 기술일꾼들의 체육과학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체육과학부문에서는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교수훈련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들에서

체육의 과학화를 위한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물질적조건을 잘 갖추어야 한다.

강습에서는 또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온 나라를 체육열기로 들끓게 대한 문제, 학교체육을 강화하며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제3차 올림픽경기대회를 앞둔 세계체육계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 등이 취급되었다.

강습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체육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의도에 대하여 더욱 튼튼히 새겨안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높은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기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군시대 체육인으로서의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승리와 영광을 만만하게 떨쳐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제7차 전국체육대회기념 남자축구강팀들의 모범경기 진행

【경양 3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은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체육인들의 대회합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체육열기가 더욱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제7차 전국체육대회기념 남자축구강팀들의 모범경기가 26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있었다. 경기장소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한 장엄한 전군경에서 전국체육인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격려사적인 서한을 보내시며 체육강국건설의 위대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체육사업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나갈



의미를 안고 모여온 관중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과 제7차 전국체육대회 참가자들, 체육부본 일꾼들, 체육인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청년학생들,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이 경기를 보았다. 모범경기는 4. 25팀과 화북팀 사이에서 벌어졌다. 경기는 관람자들의 흥분을 자아내며 시종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랭킹 선수들은 백두의 혼연열풍속에 런마한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며



힐 연기 아래쳐오르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행동에서 나타난다.》 우리 나라 끝지의 대동력기 지 북창화학발전연합기업소, 이곳에 가본 사람이라면 의례히 대형보일러 굴뚝들과 그 우로 뭉개뭉개 타채쳐오르는 흰 연기부터 머릿속에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드넓은 대지수를 꿰지르며 폭폭 뻗어나간 송전선들과 거대한 고압전기 설비들의 특색도 눈앞에 떠오를 것이다. 북창방에 들어서니 이 거창한 대동력기지가 안고있는 중대한 임무가 새삼스럽게 안겨와 우리의 가슴까지 아를랐다. 현지에 이르러 처음으로 만난 연합기업소일꾼인 김순범동무의 심정도 우리와 다름없었다. 《정말이지 지금처럼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졌던적은 없는 것 같습디다. 온 나라가 우리를 바라보고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두가 바빠 뛰고있습디다. 아마 그 어느 전수현장에서 나가보아도 우리 종업원들의 투쟁열기가 얼마나 드세한가를 잘 알

지 않는 곳에 방송선전차가 서있고 그 옆에서 연합기업소 기계에술선동대원들의 위주악 예술선동이 시작될것이었다. 《예일 저렇게 방송선전차를 들이대고 현장을 들썩하게 만들군 합니다. 우리 동무들이 저 나팔소리를 무척 좋아하단다. 아마 지금도 어느때없이 성수가 부쩍 올라있을것입니다.》 기념탑 꼭대기에 발걸음도 절로 빨라지는가싶은데 하자현장이 다달으니 그곳의 광경 또한 우리의 가슴을 쿵쿵 울리게 하였다. 거대한 강철삼발은 폭폭 박으며 석탄을 밀어제끼는 기계삼발과 드넓은 현장을 가로세로 누비는 커다란 무죄바가지들의 작업모습은 대변에 가슴을 확 트이게 하였다. 《저쪽을 좀 보십시오.》 현장을 한바퀴 빙 돌러보면 우리는 직장일꾼이 가리키는 어느 한 곳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법석이며 화우모습에 석탄을 무리우고 있는 모습에 눈을 뜨었다. 살피보니 하자직장종업원들만이 아닌것 같았다. 연합기업소 초성사에서 보았던 일꾼들의 모습도 언뜻 보였다. 그녀는 우리의 귀전에 직장일꾼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보장부본 직장성원들과 연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종업원가족들과 거주지원자들까지 찾아와 한탄 단단히 하고있습디다.》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하자현장을 벌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금 보았다. 삼철을 기운차게 해대며 동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연합기업소의 일꾼들, 그에 뒤집세라 자리다툼까지 하며 봄비는 종업원가족들과 거주지원자들... 뒤편뜻 악의없는 싱쟁이질소리가 우리의 상념을 깨웠다. 《이주머니, 눈치가 있으면 좀 비켜서시라요. 주인이 설 자리에 비좁은데 손님까지 끼어들어 복잡거러니 참...》 《손님이라뇨, 대체 뉘신데 그렇게 큰소리에요? 여기에 걸린 문체에 걸림을 내대니 실천하, 참된 애국자들이여!》 악의없는 싱쟁이질로 하여

마음속에 10월의 벼바다 설레인다

봄겨절이 금방 시작된 3월 초 대지에는 여전히 서리찬 기운이 맴돌았지만 황주군 포남 협동농장들에서는 벌써나서 농사치비를 다그치고나서 대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멋뜻이 들어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을 쫓아나서 작업자들이 일러농사를 잘 지을 방도들을 놓고 이야기들을 하고있다고 했다. 강산이 얼어붙은 그대 벌써 작업반장으로부터 분조장, 농장원들이 이르러까지 모두가 올해농사를 더 잘 지을 생각으로 가슴깊이있고있던것이다. 그날 작업반들과 자리를 같이한 송성규동무는 말하였다. 《봄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디다. 또 풍요로운 가을도 우리 손끝에서 마련된다것을 명심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양양된 열의속에 조국해방 일흔과 당창건 일흔이 되는 뜻깊은 올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첫걸음을 기세드높이 내질었다. 어느 분조에 가나,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시작이 절반이

추직전을 벌였다. 어느날 2분조에 나가 작업반원들과 함께 땅을 흠뻑 흘리며 거름더미를 쌓고 돌아오던 송성규동무는 누군가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것을 보았다. 손발이 얼은 살림으로써 소문난 김원옥동무였다. 길가에 흥얼거리는 거름을 띄어보았던것이다. 오금을 쥐고 얼어 죽어 들가말이 하게 내려앉은 거름을 모으는 그를 보는 작업반장의 눈가에, 농장원들의 얼굴에 두 감동의 빛이 일어났다. 《거름 한줌이면 쌀 한줌이 되고도 하지 않나요, 10월이 되면 로작거리가 절로 불속 솟는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며 그는 농장원들에게 조용히 하는 김원옥동무의 말이였다. 아직은 봄계절이 갖 시작이전만 그는 뜻깊은 10월을 그려보고있던것이였다. 뜻깊은 올해에 기어아 알곡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별갈은 열정안고 올해농사치비를 위해 노력하는 농장원들이 집집마다 농사치비, 구름재와 전기물생산 등 가능한 모든 거름현황을 탐구하면서 맹렬한

대고조적전장마다에 세차게 끓어번지는 애국의 열기

각각 먼저 나온 5명의 차가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아 한참 한참 긴장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화북팀의 문지기가 정확한 판단과 위치선택으로 공을 쳐냄으로써 경기에서는 결국 11:10으로 화북팀이 이겼다. 관람자들은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를 기념하는 뜻깊은 경기에서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훌륭한 경기기술과 경기방식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전체 관람자들과 선수들은 우리 당의 체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의 결승선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주체조선의 기상과 위력을 과시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세포지역에 수놓아지는 창조자들의 미담

창조적의 시인들 철도성터전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작품집 《세포동판의 푸른 파도》가 있었다. 《올랐기, 《땀방울》...》 작품집을 펼쳐보면 한뼉 한뼉의 시들을 보노라하면 땅이 부르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는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충정을 절절할 수 있다. 작품집의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오련숙, 리광옥, 리연, 한금옥, 정정숙, 리향심, 송혜선동무들을 비롯한 려단안의 돌격대원들이었다. 시를 써본 경험도 없었고, 저처럼 써본 적도 없는 시상을 수습에 한자한자 적어내려가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릴 때도 있었다. 억수로 쏟아져내리는 비바람에서 몸을 지켰던 수습이 벗어들이 글자를 알아볼수 없게 된적은 또 그 얼마였던가. 하지만 걸쳐드는 피곤도, 쏟아져내리는 비도 그들의 시를 지워버릴수 없었다. 그 한편 한편의 시들은 결코 종이장우의 글줄이 아니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이어지는 돌격대원들의 투쟁, 들끓는 현실이었다. 철도성터전만이 아닌 세

포지역의 돌격대원들이 그렇게 투쟁과 위훈, 조국애의 서사시를 수놓으며 10월의 대추전장으로 달려가고있는것이다. 불같은 사람 지난 2월 어느날 보진성출격대에 가끔분을 실은 자동차가 밤늦게 도착하였다. 근무성원이 자고있는 대원들을 깨우기 위해 별실로 달려가려고 할때였다. 다음날 작업을 위해 그때까지 공구들을 하나하나 손질하고있던 전수현동무가 앞을 막아나섰다. 《내 혼자서도 얼마든지 제길수 있으니 단잠에 든 동무들을 깨우지 마시디.》 돌격대의 일꾼이 자동차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왔을 때는 이미 준비된 뒤였다. 근무성원을 통해 사연을 들으며 일꾼은 가슴이 후더 위움을 금할길 없었다. 전수현동무는 언제나 집안과 동지들을 위한 일에 몸을 아끼지 않는 돌격대의 선동원이였다. 후대용방송기제작, 음향기계, 문화오락기계를 자체로 마련하며 그가 세포동판에 새겨온 자욱은 또 얼마였던가. 돌격대일꾼의 입에서는 부지중 이런 소리가 튀어나왔다. 《불같은 사람!》

창조의 보람과 희열에 넘쳐

덕천은하회복공장의 로동계급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로동계급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항성과 의리를 다해가려는 오렌기능공의 진정성 지배인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날부터 김원복동무는 자신부러 맡은 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을 보여준다는 말을 하였다. 아직은 봄계절이 갖 시작이전만 그는 뜻깊은 10월을 그려보고있던것이였다. 뜻깊은 올해에 기어아 알곡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별갈은 열정안고 올해농사치비를 위해 노력하는 농장원들이 집집마다 농사치비, 구름재와 전기물생산 등 가능한 모든 거름현황을 탐구하면서 맹렬한

이제부터는 우리 지휘관들이 공공경건의 기수, 전위투사자가 되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디다. 오늘날도 본메이게 내밀어보십시오. 이어 두 일꾼은 일손을 다그쳤다. 뛰게 달려나온 대원들은 그들의 모습앞에서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에서 내내러며 대대를 위훈창조로 불려있으는 미담의 지휘관들이였다. 쟁쟁- 비위를 깨는 함마질소리가 얼어든 대기를 헤가르며 풀없이 메이러져나 그날 대대는 하루작업과제를 130% 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신 현 규

장 정 철

